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04.16



KOSDAQ GLOBAL

코스닥 글로벌 상장법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KOSDAQ | 디스플레이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사업 다각화라는 성장 스토리를 이어간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이녹스첨단소재는 2024.12.10에 첫 밸류업 공시 이후 25.12.05에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 既 제시된 4가지 계획들은 차질없이 달성됨(세부 내용은 본문 내 투자포인트 챕터 참조)
- 당사는 2026.02.24에 밸류업 목표를 추가로 제시. 즉 기존 계획을 준수하는 한편 'IR/PR/공시를 통한 투자자 및 주주 정보접근성 강화'라는 추가 목표를 공시했음
-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처음 공시한 24.12.10(종가 19,280원) 이후 현재(26.04.03, 종가 29,050원)까지 이녹스첨단소재 주가는 50.7% 상승. 비록 코스닥 지수가 동 기간(2024.12.10 ~ 2026.04.03) 동안 60.8% 상승하여 동사 주가가 시장 대비 10.1%p 언더퍼폼한 점은 아쉬우나, 기업가치가 견조하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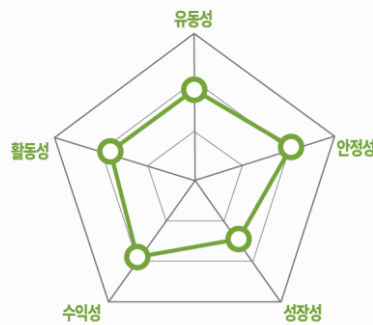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이녹스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반도체 산업 관련 다양한 고부가 소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 2026년부터 이차전지 분야에 새로이 도전
- 투자포인트는 1) 밸류업 공시 이후 관련 계획들이 양호히 달성된 점, 2) 2026년부터 신사업(중속회사 이녹스리튬)이 본격화되는 점
- 고려할 리스크 요인은 전기차 산업 수요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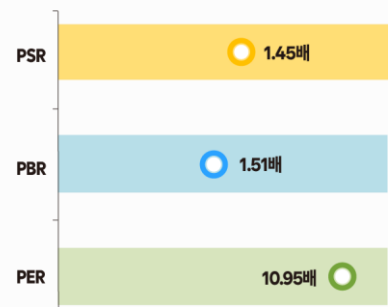


재무지표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 PBR은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Analyst 백종석 jongsukbaek@kirs.or.kr

RA 김혜빈 hbkim@kirs.or.kr

KOSDAQ

디스플레이

이녹스첨단소재는 다양한 IT소재 제조/판매 전문기업

이녹스첨단소재는 2001년 새한마이크로닉스 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어 IT용 고분자 소재분야 제조/판매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한 기업. 매출 비중은 이놀레드 부문 66.30%, 스마트플렉스 부문 25.39%, 이노셈 부문 8.31%로 구분(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연중 애플의 폴더블폰 시장 진입 이후 폴더블폰 시장 판도 변화 주목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은 2026년 115억 달러에서 연평균 14.8%로 성장하여 2030년 200억 달러까지 확대 전망. TV용 OLED는 안정적 성장세 속 수익성 하방 압박은 지속. 반면 IT(모니터/노트북) 및 차량용 OLED는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수요와 대당 단가 높아 향후 고성장 기대. 현재 글로벌 대형 OLED 패널시장 패권은 국내 업체의 기술/점유율 우위가 지속 중이나, 향후 중화권 업체의 점유율 확대 리스크도 경계가 필요. 한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성숙기이고 2026년엔 역성장이 예상됨. 그러나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2025년 전년 대비 10% 증가에 이어, 2026년에는 20% 증가 예상. 애플의 연중 폴더블폰 시장 진입 후 시장 판도 변화 주목

2026년은 이녹스첨단소재에게 변화와 성장통의 시기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396억 원(+4.0% YoY), 819억 원(-5.6% YoY) 기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4,918억 원(+11.9% YoY), 705억 원(-13.9% YoY) 전망. 2026년은 변화의 해로 신사업인 이녹스리튬 첫 매출 반영될 전망. 기존 사업은 전년 대비 이놀레드 부문 매출액은 감소하고, 스마트플렉스는 유지되며, 이노셈은 성장할 전망. 신사업 초기인 만큼 수익성 관련해서 2026년 단기 성장통은 불가피하나, 이는 동사에게 필요한 과정으로 판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4,894	3,870	4,228	4,396	4,918
YoY(%)	0.4	-20.9	9.3	4.0	11.9
영업이익(억원)	971	422	868	819	705
OP 마진(%)	19.8	10.9	20.5	18.6	14.3
지배주주순이익(억원)	854	328	707	580	473
EPS(원)	4,263	1,624	3,498	2,871	2,371
YoY(%)	4.2	-61.9	115.3	-17.9	-17.4
PER(배)	7.1	19.7	5.7	7.9	13.5
PSR(배)	1.2	1.7	1.0	1.0	1.3
EV/EBITDA(배)	4.5	9.9	4.7	8.3	9.0
PBR(배)	1.6	1.6	0.9	1.2	1.5
ROE(%)	24.8	8.3	16.3	13.6	11.4
배당수익률(%)	1.5	0.8	1.7	1.5	1.2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4/14)	32,050원
52주 최고가	42,050원
52주 최저가	21,650원
KOSDAQ (4/14)	1,121.88p
자본금	101억원
시가총액	6,390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5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73억원
외국인지분율	7.97%
주요주주	이녹스 외 4인 33.08%
	베어링자산운용 5.1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4.8	33.3	42.1
상대주가	-2.1	0.7	-10.2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 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한 기업



기업 개요

이녹스첨단소재는 고분자 합성/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한 IT소재 전문기업

**이녹스첨단소재는 2001년
설립되어 2006년 코스닥 상장한
고분자 합성/배합 기술 기반
IT 소재 전문기업**

이녹스첨단소재는 2001년 ‘(주)새한마이크로닉스’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IT 핵심 소재는 일본 등 해외 소재 강국/기업에만 의존하던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녹스첨단소재는 설립 초기부터 전자정보용 고분자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소재전문 기술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하였다. 당사는 2001년 안성 1공장을 준공한 이래, 2004년 안성 1공장 라인을 증설하였다. 2005년에는 사명을 기존 ‘새한마이크로닉스’에서 ‘이녹스’로 변경했고, 중국 소주에 사 무소를 설립하였다.

2006년은 이녹스첨단소재에게 변화가 컸던 시기였다. 2006년 이녹스첨단소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고, 2개의 해외법인을 설립하며(중국 심천, 홍콩) 성장 기반을 닦았으며, 국내에서 안성 2공장을 준공하기도 했다. 2007년에는 FPCB(연성회로기판) 관련 소재 관련하여 삼성전자 등의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후 FPCB 소재인 이노플렉스는 동사의 주력 제품이 되었다. 2008년에는 안성 2공장 라인을 증설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했다.

2009~2010년부터 동사의 성장세는 도드라졌다. 2010년 이녹스첨단소재는 FPCB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 FPCB 소재 이노플렉스(INNOFLEX, 현 제품명은 SMARTFLEX)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하였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으로(FCCL 제품 관련) 인증을 받았다. 연매출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11년 당사는 사업장을 기존 안성에서 아산으로 통합 이전하였다. 이 무렵에는 성장세가 가팔랐던 만큼, 다수 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3년 오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한편 2014년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이놀레드(INNOLED) 사업을 런칭하였다.

2017년부터는 사업구조 변경(지주사 체제 도입)과 외형 확장이 이루어졌다. 2017년 기존 이녹스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사 ‘이녹스’, 사업회사 ‘이녹스첨단소재’로 각기 분할되었다. 2018년 당사는 중국 광저우, 베트남 박닌에 해외 생산 법인을 설립했다. 계열사 확대도 본격화되었는데, 2019년 Si(실리콘) 음극재 소재 및 반도체 슬러리 소재 재생 사업을 영위하는 TRS(現 사명 이녹스에코엠)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녹스첨단소재의 기업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FPCB 소재 사업에서 출발하여 반도체 패키지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으로 제품/사업 다변화를 이루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22년, 3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할 정도로 외형도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녹스첨단소재의 성장 의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사업화 하지 않았던 산업 분야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2023년 투자 전문 자회사 아이윈의 사명을 이녹스리튬으로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리튬 사업에 진출했다. 연결 종속회사 이녹스리튬은 이차전지 소재 중 수산화리튬 관련 신사업을 위한 종속회사이다. 이녹스리튬은 2026년 2월경 고객사향 첫 샘플을 출하하였으며 매출은 2Q26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이녹스첨단소재는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기업이다. 당사는 2024년 12월 10일, 자율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발표했다. 당시 당사는 강화된 주주가치 제고 목표로 총주주환원율 20% 이상, 자사주

소각 실시, 최소 배당금 도입, 배당절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이행상황 등은 투자포인트 챗터에서 상세히 설명).

종합적으로 볼 때 이녹스첨단소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장을 통해 세계적인 IT소재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5년말 기준 이녹스첨단소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비상장 5개사

이녹스첨단소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5개사이다.

1) GUANGZHOU INNOX ADVANCED MATERIALS Co., Ltd.(동사 지분율 100.0%)와 2) INNOX ADVANCED MATERIALS VINA Co., Ltd.(동사 지분율 100.0%)는 각각 중국, 베트남 지역 생산법인이다. 참고로, 중국 광저우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은 약 489억 원, 당기순이익 약 8억 원을 기록했다. 베트남 법인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은 약 26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원이었다.

3) (주)이녹스리튬(동사 지분율 60.0%)은 이차전지 소재(수산화리튬 제조 등) 관련 신사업을 위한 종속회사이다. 이녹스리튬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총액이 약 5,925억 원, 당기순손실 약 71억 원이었다.

4) (주)아이넥스(동사 지분율 100.0%)는 외부에 벤처투자를 모색하는 투자전문회사이고 5) 에스알-이녹스 메타버스 벤처투자조합 1호는 신기술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투자조합으로 (주)아이넥스의 종속회사이다. 한편, 이외에 이녹스첨단소재의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으로 (주)위든(동사 지분율 36.0%, 판교 사옥 관리업 영위)이 있다.

매출의 구성, 주요 제품/서비스

2025 기준 매출은 이놀레드

66.3%, 스마트플렉스 25.4%,

이노셈 8.3%로 구성

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이녹스첨단소재 매출 비중은 이놀레드 부문 66.30%, 스마트플렉스 부문 25.39%, 이노셈 부문 8.31%로 구분된다. 각 부문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놀레드 부문은 OLED 소재의

광학·기계적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품 신뢰성을 완성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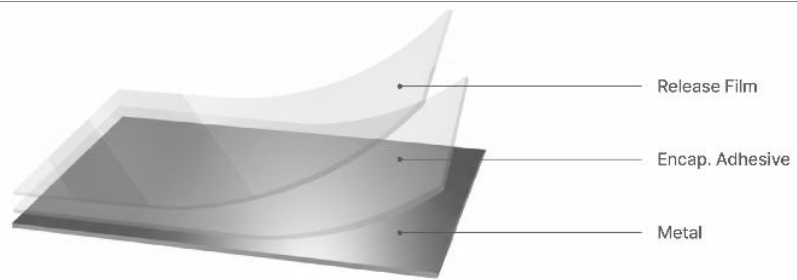
소재 사업

1) 이놀레드 부문(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부문, 매출 비중 66.30%)

이놀레드 사업은 동사 매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정교한 차단 기술과 고기능성 점접착 솔루션을 바탕으로 OLED 소재의 광학·기계적 성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제품 신뢰성을 완성하는 소재 사업이다. 특수 기능성 필름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Encapsulation Film(봉지소재)은 수분과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OLED 소자를 보호하고 열적 안정성을 향상시켜 OLED TV의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는 소재이다. 기존 Edge Seal 방식 대비 대면적 OLED 디스플레이 보호 성능이 우수하고, Metal 일체형, Olefin 소재 적용 등 다양한 구조 및 고객 요구 관련 맞춤 대응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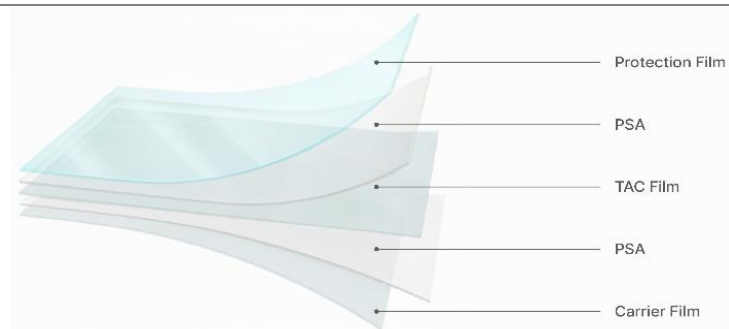
Encapsulation Film(봉지소재)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Anti Reflection Film(반사방지필름)은 높은 광 투과율과 저반사 특성을 통해 외부 광 간섭을 억제하고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고휘도 효과를 구현하는 광학 소재이다. 반사율 저감 설계를 통해 고투과·고시인 특성이 구현 가능하고, 우수한 표면 내구성을 기반으로 스크래치 저항성 강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고온-저온 환경에서 광학 성능의 안정적 유지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Anti Reflection Film(반사방지필름)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밖에 공정용 보호 필름, OCA(Optical Clear Adhesive), Encapsulation Resin 등의 제품들이 있다.

공정용 보호 필름/OCA/Encapsulation Resin 제품 정의 및 특징

제품	정의	특징
공정용 보호 필름	Flexible OLED Panel 제조 공정 전반에서 외부 오염 및 공정 손상을 방지하여, 공정 안정성과 수율 확보에 기여하는 기능성 저점착 Film	Flexible OLED 공정에 적합한 광학적 특성 설계, 우수한 정전기 방지 성능을 통한 공정 불량 최소화 등
OCA(Optical Clear Adhesive)	OLED Display의 화질 완성도와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고투명 층간 접착 소재	우수한 광학 투명도를 기반으로 Display 화질 저하 최소화, 3D 곡면 구조에 대응 가능한 라미네이션 설계 등
Encapsulation Resin	OLED 소자를 수분-산소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발광 특성 열화를 최소화하고 구동 안정성을 구현하는 Resin Type 봉지 소재	Gas Barrier Resin 설계를 통한 수분-산소 침투 최소화, Low Outgas 특성으로 공정 및 장기 사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 등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스마트플렉스 부문은 Smart Device의 신경계를 구성하고 보호하여 성능을 높이는 고기능성 소재

2) 스마트플렉스 부문(회로기판 소재 부문, 매출 비중 25.39%) Smart Device의 신경계를 구성하고 보호하여 성능을 높이는 고기능성 소재이다. 배합 기술과 정밀 코팅 기술, 복합화 등을 통해 IT 모듈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EMI 차폐 소재, TPU(Thermoplastic Poly Urethane) 필름, Coverlay 등 각종 회로소재 제품들이 그 제품 라인업이다.

스마트플렉스 주요 제품 정의, 특징

제품	정의	특징
EMI 차폐 소재	Device 내부의 전자기 간섭(EMI)을 근본적으로 제어하여 모듈의 성능 저하와 오작동을 방지하는 소재	물성 및 구조 Customizing 을 통한 다양한 제품 공정 대응, 높은 투자율과 낮은 손실을 기반의 우수한 차폐 성능 등
TPU Film	Foldable Device 의 Folding 구동부를 보호하는 Matt Film. 외부 이물 유입을 차단하고 구동 안정성을 보장하는 고기능성 소재	우수한 광학 특성 및 외관 품질, 높은 복원률을 통한 반복 Folding 환경에서의 형상 안정성 확보 등
Coverlay	연성회로기판(FPCB)의 회로를 보호하고 절연 신뢰성을 부여하는 핵심 재료	내열 접착성 및 내굴곡 특성에 기반한 우수한 공정성, 우수한 충진성과 전기 절연성으로 FPCB의 신뢰성 확보 등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노셀 부문은 대부분 반도체 제조 공정용 특수 필름 제품

3) 이노셀 부문(반도체 패키징용 소재 부문, 매출 비중 8.31%) 반도체 패키지의 수율과 신뢰성을 좌우하는 필수 소재로, 정밀 접착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고온·고집적 패키지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하는 제품이다. 대부분 반도체 제조 공정용 특수 필름 제품들로, DAF(Die Attach Film), QFN, EMI 차폐 공정용 필름 제품 등이 주요 제품 라인업이다.

이노셀 주요 제품 정의, 특징

제품	정의	특징
DAF(Die Attach Film)	UV 가변 접착 기술을 활용하여 Die Attach 공정 효율을 향상시킨 반도체 칩 접착 Film	우수한 Wire 매립성 및 작업성으로 공정 효율성 향상 등
QFN	QFN 패키지 Molding 공정에서 Leadframe 후면에 부착되어 EMC Leakage 를 방지하는 고내열 접착 Film	열처리 과정 중 Particle 부착 방지를 통한 공정 청정도 확보 등
EMI 차폐 공정용 필름	패키지 Molding 후 EMI Sputtering 시 패키지 하부를 보호하여, 공정 오염 및 불량 발생을 억제하는 Film	고점착 설계를 통한 Backspill 발생 억제 등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녹스리튬은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및 일부 탄산리튬 제조/판매 관련 양산을 준비 중

4) 이녹스리튬(수산화리튬, 리튬 제조/판매) 동사는 연결 종속회사 이녹스리튬(지분율 60.0%)을 통해 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5년말 현재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빠르면 2026년 2분기에 첫 매출이 발생될 전망이다. 이녹스리튬은 이차전지용 수산화리튬 및 일부 탄산리튬 제조/판매 관련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수산화리튬은 이차전지 내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의 원소재이다. 이녹스리튬은 황산리튬, 탄산리튬, 저순도 수산화리튬 등 다양한 원재료를 전환하고 배터리용 무수 및 일수 수산화리튬으로 제조하려 사업을 준비 중이다. 최종 제품은 파우더 형태로 제조되어 삼성SDI 등 여러 배터리 셀 고객향으로 납품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동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을 2025년 11월 준공했으며, 해당 공장에서 연간 2만톤 규모(1단계 투자)의 수산화리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Capa.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글로벌
모바일/디스플레이/반도체 관련
부품 기업, OSAT, IDM 등

주 고객은 글로벌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품, OSAT 업체 및 종합반도체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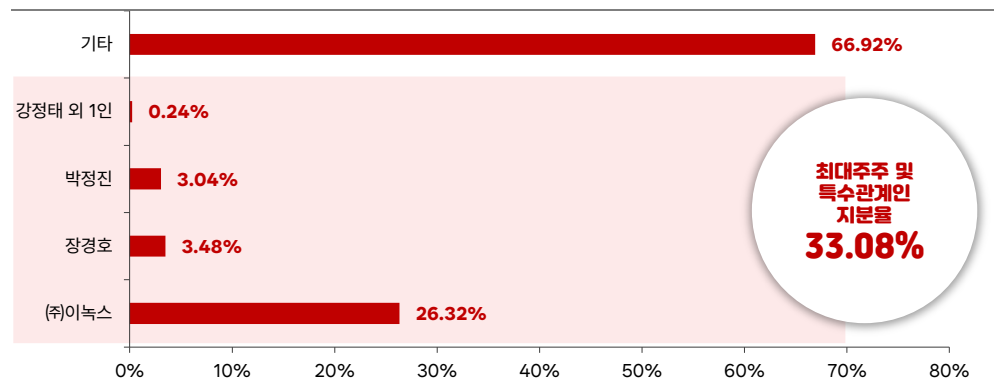
이녹스첨단소재의 고객은 글로벌 모바일,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 부품, OSAT(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업체 및 종합반도체 기업들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중화권, 미국 등 글로벌 해외 소재 기업 등으로 고객군이 다변화되어 있다. 2026년부터 동사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들이 본격화되면 고객군은 추가로 확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말 기준 이녹스첨단소재
최대주주는 (주)이녹스로, 지분
26.32%를 보유

최대주주 등은 (주)이녹스 외 4인

이녹스첨단소재 최대주주는 (주)이녹스로, 지분 26.32%를 보유하고 있다. (주)이녹스를 포함한 최대주주 및 기타특수관계인 4인(장경호, 강정태, 박정진, 고영순)의 지분 합은 33.08%이다(2025년 연간 사업보고서 기준). (주)이녹스는 2017년 인적분할 이후 이녹스첨단소재를 지배하는 이녹스그룹 지주회사이다. 참고로 (주)이녹스는 장경호 이녹스그룹 회장/이녹스첨단소재 대표이사가 지분 48.54%를, 박정진 (주)이녹스 대표이사가 20.76%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녹스첨단소재 주주 현황





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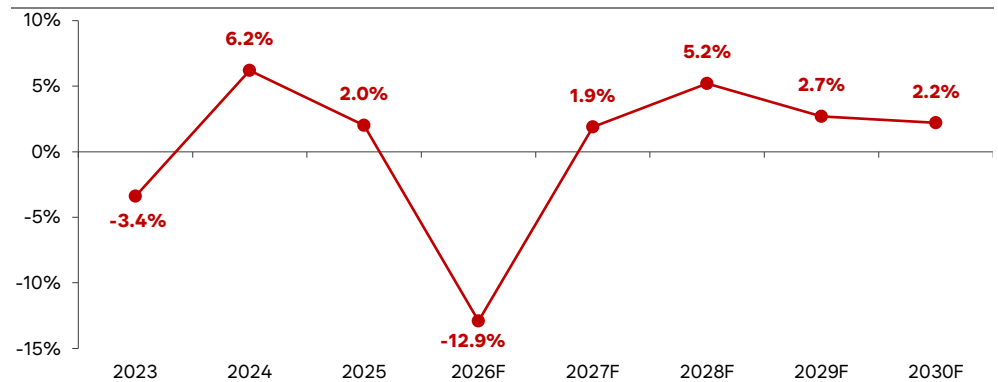
1 글로벌 스마트폰/폴더블폰 시장 현황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할 전망**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2025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왔으나, 2026년에는 원가 부담 확대에 의해 역성장이 전망된다.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12억 6천만 대를 기록했다. 팬데믹 시기 이후 수요 기저 효과가 점차 소멸되는 가운데,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와 주요 업체들의 신제품 효과가 시장 회복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업체별 점유율은 애플이 2억 5,170만 대(점유율 20.0%)로 전년에 이어 출하량 1위를 유지했다. 출하량 2, 3위는 삼성전자, 샤오미로, 삼성전자는 2억 4,120만 대(19.1%)를, 샤오미는 1억 6,520만 대(13.1%)를 기록했다.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한 11억 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3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부진한 성장률(예측) 수준으로,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부품 가격 급등이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전망 관련, 지속적인 하향 조정을 야기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Q26 기준 LPDDR DRAM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고, NAND의 경우 동기간 90% 이상 급등했다. DRAM/NAND 가격 상승은 스마트폰 세트 업체의 원가 구조를 악화시키는 한편, 판매가격 인상 및 폰당 메모리 탑재량 하향 조정 압력 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YoY 추이 및 전망



자료: IDC,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시장조사기관 TrendForce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범용 DRAM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58~63% 상승하고, NAND 계약가격은 70~7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고수익 제품 중심으로 집중 및 재배분했기 때문이다. 즉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HBM 생산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 속에서 일반적인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지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결국 2026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 감소 전망 속 ASP(평균판매단가) 상승 압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저가형 비중이 높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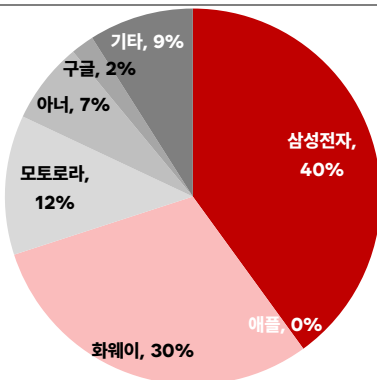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2025년 전년 대비****10% 증가에 이어, 2026년에는****20% 증가 예상**

전통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성숙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폴더블 스마트폰은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폼팩터(제품 형태)로 부상 중이다. 장기화된 교체 주기와 하드웨어 혁신 부재 속에서 제조사들은 폴더블폰을 전략적인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신제품 출시 효과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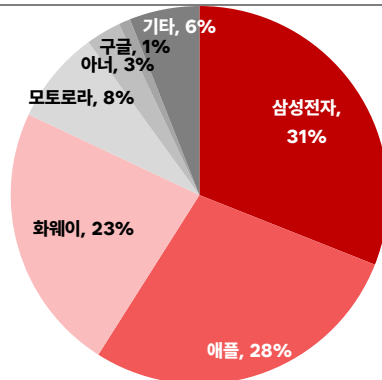
출하량 기준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 비중은 아직 제한적이거나, 폴더블폰의 ASP가 일반 스마트폰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구조적 특성상 판매가격(시장 가치) 기준 비중은 물량 비중을 크게 상회한다. IDC는 폴더블폰이 2029년까지 전체 스마트폰 시장 가치의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2025년 전년 대비 10% 증가에 이어, 2026년에는 20% 증가가 전망되며 성장이 가속화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Counterpoint).

2026년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은**애플 진입으로 기존 2강 체제에서****3강 구도 형성 전망**

2026년은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 재편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DC에 따르면 애플은 약 2,400달러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아이폰 출시 첫해 출하량 기준 점유율 22% 이상, 시장 가치 기준으로는 3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역사적으로 스마트워치(Apple Watch), 무선 이어폰(AirPods), 태블릿(iPad) 등 신규 제품 카테고리에서 후발 주자로서 진입하더라도 해당 제품 카테고리의 주류화를 이끄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폴더블폰 시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애플의 시장 진입은 기존 폴더블폰이라는 제품에 대한 관망 수요를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폴더블 시장은 삼성, 화웨이 2강 체제에서 삼성, 화웨이, 애플 중심의 3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OEM 업체별 점유율

자료: Counterpoin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F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OEM 업체별 점유율 전망

자료: Counterpoint,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애플의 폴더블 프로토타입은**태블릿 형태의 북타입이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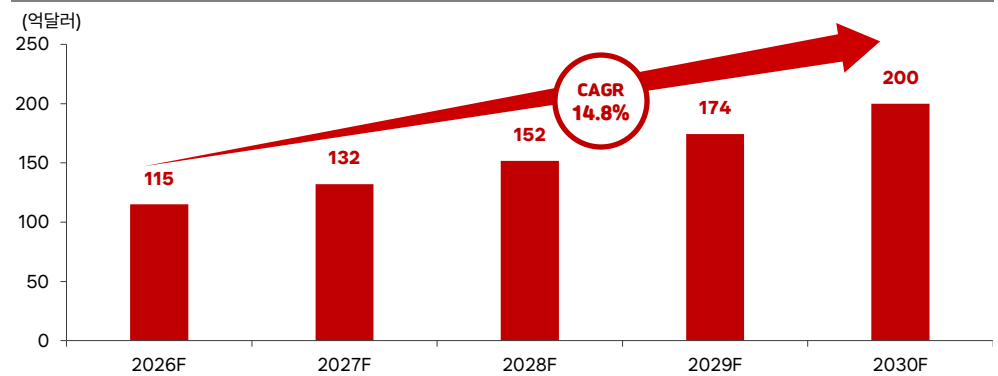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제품 사양 측면에서도 시장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폴더블 아이폰 관련하여 접었을 때 약 5.5인치, 펼쳤을 때 약 7.8인치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북타입(book-type) 형태 제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즉 폴더블 아이폰은 스마트폰과 소형 태블릿 사용 경험을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아직 완전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며 시장조사업체와 관련 업계 관측/예측에 기반한 전망이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 현황

2026년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은 약 115억 달러에서 연평균 14.8%로 성장해 2030년 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

2026년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은 약 115억 달러에서 연평균 14.8%로 성장해 2030년 200억 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UBI Research). 스마트폰 중심의 소형 OLED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중대형 OLED는 TV·모니터·노트북·차량용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침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글로벌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은 적용 애플리케이션별로 그 성장 속도에는 차별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LED 패널 업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TV 분야에서 모니터 및 고부가가치 IT OLED로 사업 중심축을 옮기고 있다.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 전망



자료: UBI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TV용 OLED는 안정적 성장세 속 수익성 하방 압박 지속

TV용 OLED 출하량은 2025년 643만 대에서 2026년 720만 대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나, 팬데믹 특수로 기록한 역대 최고치(2021년 770만 대)를 여전히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TV는 제품 특성 상 교체 주기 장기화로 인한 수요 탄력성 저하가 구조적인 성장 제약 요인인 가운데, LCD 기반의 미니 LED TV가 로컬 디밍 기술(화면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제어해 고명암비를 구현하는 기술)을 앞세워 중저가 프리미엄 TV 시장을 잠식하면서 OLED 패널 업체의 수익성 하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OLED 시장 성장 동력은 65인치 이상 대형화, 4K/8K 초고해상도, 고주사율·VRR 등 게이밍 특화 기능 수요 등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며, OLED TV 업체의 수익성 방어는 결국 이러한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교체 수요 속도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T 및 차량용 OLED는 아직 시장규모는 작지만, 수요와 대당 단가 높아 향후 고성장 기대

모니터/노트북 중심의 IT OLED는 현재 대형 OLED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이다. 시장조사기관 Omdia에 따르면 2026년 TV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12.0% 성장이 전망되는 반면,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전년 대비 60.9%, 노트북용은 45.9%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모니터용 OLED는 2030년 전체 중대형 OLED 시장의 약 26%를 차지, 주력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차량용 OLED 역시 완성차 업계의 곡면형 디바이스 등 다양한 폼팩터 수요에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 OLED 패킷은 현재 국내 업체의 기술/점유율 우위 지속 중이나, 향후 중화권 업체의 점유율 확대 리스크 요인 상존

국내 주요 OLED 업체는 현재 대형 OLED 시장 내 압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글로벌 9인치 이상 대형 OLED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의 합산 점유율은 92.4%에 달하며, TV용 OLED 패널은 거의 전량 한국 패널기업 생산 체제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 캠퍼스에 4조 1,000억 원을 투입한 8.6세대 IT OLED 라인을 2026년 3분기에 가동할 예정으로, 기술 우위 기반 고부가 IT OLED 시장 선점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패널 업체들의 추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리스크 요인이다. BOE는 청두에 630억 위안(약 12조 4,400억 원), Visionox는 허페이에 550억 위안(약 10조 8,000억 원) 규모 8.6세대 IT OLED 라인 투자를 집행 중이며, 패널 생산능력 기준으로 중국 기업들이 2029년부터 한국 기업들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국내 업체들이 W-OLED/QD-OLED 기반 기술적 우위와 고부가 제품 포트폴리오 우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점유율과 수익성을 중국 기업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주요 패널 업체별 OLED 투자 및 양산 계획

	투자금액	세대	양산 목표	주요 전략
삼성디스플레이(아산 A6)	4 조 1,000 억원	8.6 세대	1H26	애플 맥북 프로 탠덤 OLED 독점 공급. IT 용 OLED 60% 이상 점유율 유지 목표.
LG 디스플레이(파주 P8/P10)	1 조 2,600 억원	6 세대 (유지)	8.6 세대 관망	8.6 세대 미결정. 기존 6-8 세대 라인으로 태블릿·노트북 대응. 수요 가시성 확보 후 투자 결정 방침
BOE(청두 B16)	630 억 위안	8.6 세대	2H26	삼성 D 대비 약 3 배 규모. 애플 공급망 진입보다 화웨이·ASUS 등 중화권 고객 우선 공략
CSOT (광저우 T8)	약 295 억 위안	8.6 세대	2027	모니터·노트북 패널 겨냥
VISIONOX(허페이)	550 억 위안	8.6 세대	2027	

자료: 언론 종합,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점검: 제시된 계획 양호히 달성

이녹스첨단소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 점검

이녹스첨단소재는 2024.12.10에 공시를 통하여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사는 25.12.05에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공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사주 소각 계획 → 초과 달성

동사는 2025~2027년 매년 20만주 이상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실제로 30만주를 소각, 계획 대비 10만주를 추가로 소각했다.

2) 최소 배당금 배당 계획 → 초과 달성

이녹스첨단소재는 매년 최소 주당 250원 이상 배당 계획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2025년 배당금으로 주당 350원을 지급하여 계획 대비 주당 100원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3) 2025년 총주주환원율(TSR) 20% 목표 → 소폭 초과 달성

동사는 2025년 총주주환원율(Total Shareholder Return) 20%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실제로 20.3%를 실현하여 계획을 달성하였다. 참고로 계산된 총주주환원율 수치 20.3%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년에 지급한 배당금 66억 원과 2025년에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76억 원을 더한 금액인 142억 원을 2024년 연결 당기순이익 701억 원으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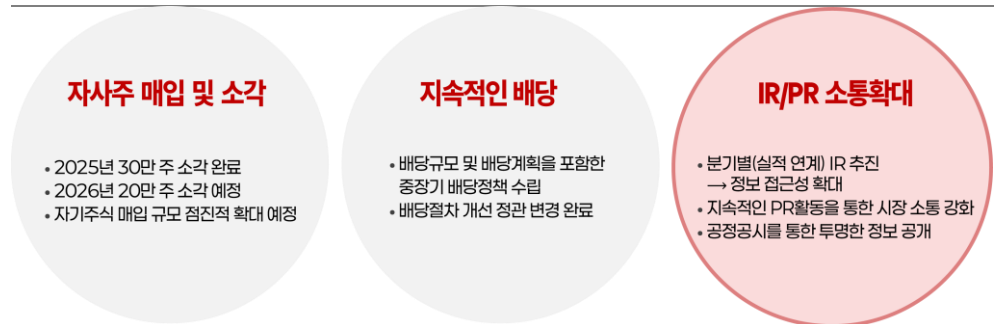
4) 배당절차 개선 계획 → 정관 개정 완료

동사는 배당절차 관련, 배당금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을 확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실제로 2025.03.26 정기주주 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완료하였다.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한 기존 주주환원 정책 지속 및 분기별 IR·PR 활동 확대를 통한 투자자 정보접근성 강화 방침 재확인

한편, 이녹스첨단소재는 2026.02.24에 공시를 통해 추가적인 ‘2026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혔다. 동 공시를 통해 동사는 기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IR/PR/공시를 통한 투자자 및 주주 정보접근성 강화’라는 문구를 추가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분기별 투자자향 IR 행사 시행을 추진하여 투자자 및 잠재투자자에게 이녹스첨단소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PR(홍보) 활동을 통하여 시장 소통을 강화하며, 공정공시를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녹스첨단소재 기업가치 제고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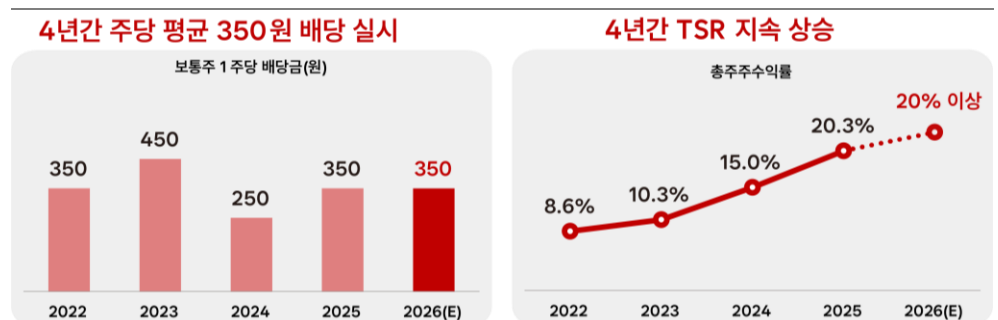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녹스첨단소재 주주와의 소통 강화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이녹스첨단소재 배당 및 TSR(총주주환원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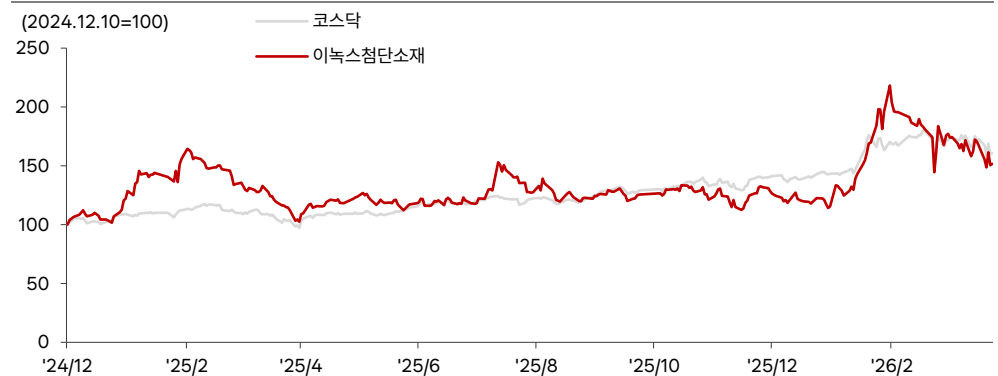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밸류업 공시 이행에 따른 투자자
신뢰 제고로 동 기간 주가 50.7%
상승하는 등 기업가치 견조한
증가세 확인**

이녹스첨단소재의 기업가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을 처음 공시한 24.12.10(종가 19,280원) 이후 현재(26.04.03, 종가 29,050원)까지 이녹스첨단소재 주가는 50.7% 상승했다. 비록 코스닥 지수가 동 기간(2024.12.10 ~ 2026.04.03) 동안 60.8% 상승하여 동사 주가가 시장 대비 10.1%p 언더퍼폼한 점은 다소 아쉬우나, 기업가치가 견조하게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었다. 동 기업가치 상승은 밸류업 공시 제시 및 차질 없는 이행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녹스첨단소재 주가추이



자료: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부터 신사업(종속회사 이녹스리튬) 가시화

**연결 종속회사 이녹스리튬을 통한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준비 완료, 2Q26부터 고객사향
본격 매출 개시 전망**

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사업(수산화리튬 및 일부 탄산리튬 제조/판매 사업)이 2Q26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동 사업은 신성장동력으로, 이녹스첨단소재의 중장기적 성장 요인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이녹스첨단소재는 연결 종속회사 이녹스리튬을 설립하여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장 준공을 2025년 11월 완료하였다. 곧바로 시생산은 4Q25에 시작하였으며, 2026년 2월, 샘플 제품을 일부 고객사향으로 납품하고 제반 테스트를 받고 있다.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오는 2분기부터 매출 발생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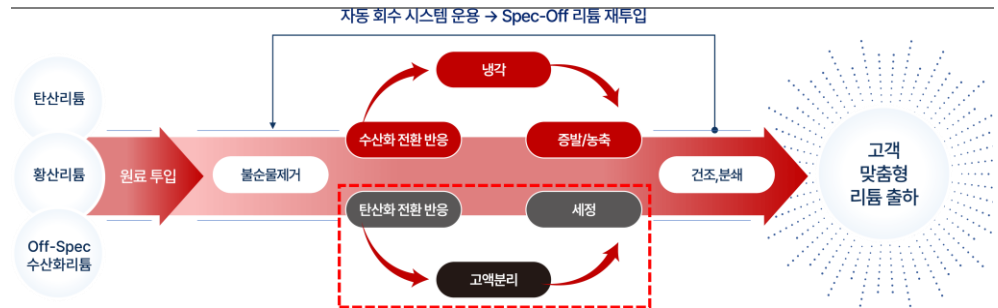
**오창테크노폴리스 공장 연간
2만톤 Capa. 확보 및 단계적
증설 계획**

수산화리튬 제조/판매 사업 관련, 제품 생산 공정을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수산화리튬은 이차전지 내 양극재의 핵심인 리튬의 원소재로, 리튬은 충/방전 과정에서 리튬이온을 보내고 받는 일종의 저장소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이녹스리튬은 황산리튬, 탄산리튬, 저순도 수산화리튬 등 다양한 원재료와 첨가제를 공정에 투입, 필터링 공정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전환 공정을 통해 순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배터리용 고순도 수산화리튬 혹은 탄산리튬 반제품(액체 또는 반죽 형태)을 얻게 된다. 이후 이를 건조시키고 분쇄하게 된다. 이 과정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수 또는 일수 수산화리튬 등 제품이 완성되며, 제품의 형태는 파우더 형태를 띤다. 이는 고객사(양극재 업체 등)에게 공급된다.

이녹스리튬은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을 2025년 11월 준공했으며, 해당 공장에서는 연간 2만톤 규모(1단계 투자)의 수산화리튬 등을 생산할 수 있는 Capa.를 보유했다. 향후 시장 수요, 사업 레도 정상화 속도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2~3단계 Capa. 확대와 탄산리튬, 황화리튬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녹스첨단소재 이녹스리튬 제품 생산 공정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이녹스리튬 2026년 매출액 690억 원으로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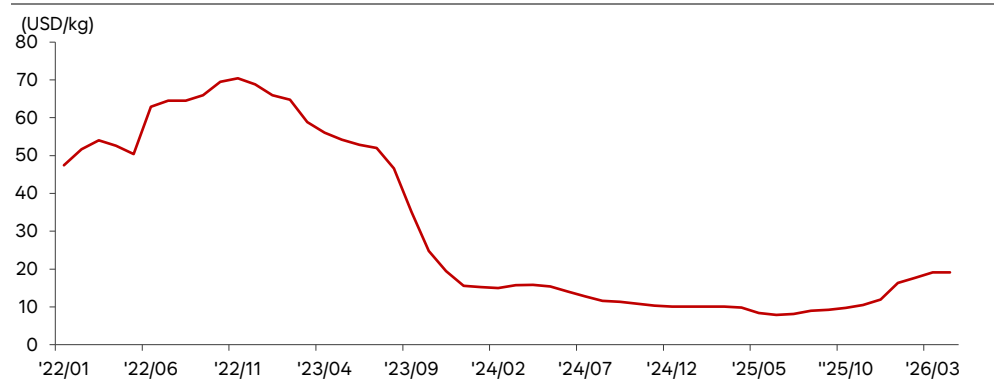
이녹스리튬의 실적은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2026년 연간 이녹스리튬 매출액은 690억 원, 영업이익은 -2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26년 한해 동안 2,300~2,500톤 판매량 전망치를 가정한 것이다. 2027년에는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가 예상된다. 2027년 이녹스리튬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2,650억 원, 영업이익 -170억 원을 전망하는데, 이는 2027년 한 해에 약 1만톤 내외의 판매량 전망치를 가정한 것이다. 동 사업은 사업 초기 국면인만큼 높은 실적 변동성은 불가피할 수 있다.

참고로 리튬 가격 추이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기관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집계에 따르면, 리튬 가격(USD/kg, 99.5%min CIF China 기준)은 2022년초부터 2023년 7월말경까지 kg당 50달러 선을 유지했으나, 2023년 8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25년 6월말 7.8달러대까지 내려가는 장기 약세를 보였다(아래 그래프 참조). 이는 전기차 캐즘과 업체들의 과잉 증설, 글로벌 경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다행히도 2025년 12월경부터 리튬 가격은 서서히 반등하고 있다. 2026.04.13 현재 리튬 가격은 kg당 19.1달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022~2023년 상반기의 가격 레벨인 50달러 대비해서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향후 공급 구조조정 또는 수요 회복 등으로 리튬 가격이 상승하는지 여부가 이녹스리튬의 향후 실적에 관련될 수 있다.

리튬 가격 추이



자료: KOMIS,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TO 조직 신설 및 이노비엠**사업부 개편을 통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1H27****이후 전기차용 열폭주방지****면압패드 등 신제품 매출 가시화****기대**

한편, 이녹스첨단소재는 이녹스리튬 외에도 이차전지 소재사업 강화를 준비 중이다(아래 그림 참조).

2025년 12월 이녹스첨단소재는 연구개발 기능을 관리하고 기술 전략을 일원화하기 위해 CTO(기술총괄) 조직을 신설했다. CTO 조직은 중장기 기술 로드맵 수립과 원천기술의 확보, 사업화 지원 등 기술력 관련 전반을 총괄한다.

그 외에 이녹스첨단소재는 ‘이노비엠(배터리 & 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하였는데, 기존 신사업 추진실을 배터리 및 모빌리티 분야를 전담하는 역할로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완성차 및 배터리 고객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첨단소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하여 전기차용 열폭주방지 면압패드, 전기가변형 집착소재 등 다수 제품들을 개발 중에 있고, 관련 매출은 1H27부터 일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열폭주방지 면압패드 등은 최종 고객인 완성차 기업이 플랫폼을 변경할 때에 본격 납품이 가능하다. 전기차 시장이 변동하고 있어 향후 납품 시기 및 매출 목표치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 변동이 불가피 할 수 있다.

이녹스첨단소재 이노비엠 사업

자료: 이녹스첨단소재,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연간 실적 리뷰

2025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396억 원(+4.0% YoY), 819억 원(-5.6% YoY) 기록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396억 원(+4.0% YoY), 819억 원(-5.6% YoY)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전년(4,228억 원) 대비 4.0% 성장했다. 모바일용 회로 소재 위주인 스마트플렉스 부문 매출액이 전반적인 주문 및 수요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22.1% 감소한 상황에서도, 주력 사업인 이놀레드 부문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1% 증가하여 전사 매출 성장세를 달성했다. 이놀레드 부문 매출 호조는 Encapsulation 필름(봉지소재)과 AR 필름(반사방지) 판매 확대에 주로 기인했다. Encapsulation 필름(봉지소재) 제품 납품은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성장했고, AR 필름(반사방지) 제품 공급의 경우 전년 대비 80% 이상 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이노셈 부문은 전년과 유사한 매출액을 기록했다(2024년 369억 원 → 2025년 36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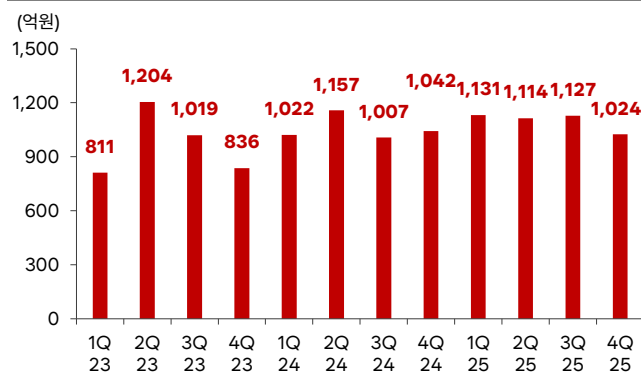
지역별로 실적을 살펴보면, 본사와 베트남 지역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9.4%, 19.2% 감소했으나 중국 지역 매출액은 32.2% 성장했다. 중국 지역 매출 상승은 대형 OLED 관련 제품 수요 증가로 인해 모 고객향 매출이 급증(2024년 721억 원 → 2025년 1,207억 원) 한 점에 기인했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868억 원) 대비 5.6% 역성장하였다. 신사업 준비 관련하여 종속회사 이녹스리튬의 영업적자 -85억 원이 실적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참고로 2025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은 각각 65.3%, 16.1%를 보여 2024년 대비 매출원가율은 유사하고 판관비율은 2.2%p 악화되었다(2024년 매출원가율, 판관비율 각각 65.5%, 13.9%). 즉 판관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악화되고 신사업 관련 비용이 2025년에 반영되며 2025년 이녹스첨단소재 수익성은 악화되었다(2025년 연간 영업이익률은 18.6% VS 2024년 연간 영업이익률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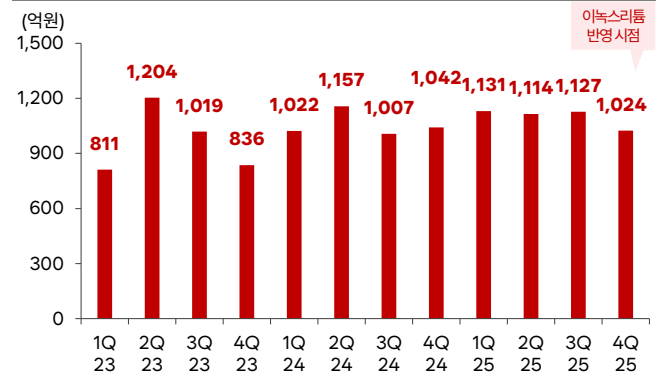
4Q25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1,024억 원(-1.7% YoY), 127억 원(-49.3% YoY)을 기록했다. 전년동기(4Q24) 매출액, 영업이익 수치(각각 1,042억 원, 250억 원) 대비해서 수익성 중심으로 악화된 실적이었다. 매출액이 아직 발생치 않고 영업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녹스리튬이 동사 4분기 실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이놀레드 부문의 경우도 3분기 대비 4분기에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감소되기도 했다.

분기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6F 실적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918억 원(+11.9% YoY),
705억 원(-13.9% YoY) 전망**

2026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918억 원(+11.9% YoY), 705억 원(-13.9% YoY)으로 예상된다.

부문별로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놀레드 부문 매출액은 전년(2,915억 원) 대비 7.0% 감소한 2,710억 원으로 전망한다. 고부가 제품의 판매 확대가 일부 기대되나 전쟁, 경기악화로 고객들의 세트 수요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추정은 보수적 관점에서 보았다. 스마트플렉스 부문 매출액은 전년(1,116억 원)과 유사한 1,108억 원으로 전망한다. 2025년에 이미 한차례 2024년 대비 매출 레벨이 다운(2024년 1,432억 원 → 2025년 1,116억 원)되어 추가적인 수요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적을 추정했다.

반면에 이노셈 부문 매출액은 전년(366억 원) 대비 12.2% 증가한 410억 원으로 전망한다. 반도체 패키징 소재 밸류체인 중 5가지 이상 공정에 필요한 고부가 소재 매출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DAF(Die Attach Film) 필름 제품의 경우 국내 신규 대형고객향으로 빠르면 2Q26부터 납품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노셈 부문은 국내/외 종합반도체 기업 및 후공정 기업들 대상으로 고객군 확대가 진행 중인만큼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한편, 신사업인 이녹스리튬 관련해서는 투자포인트 챗터에서 전술했듯이 2026년에 690억 원의 매출액을 기대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년 대비 이놀레드 부문 매출액은 감소하고, 스마트플렉스는 유지되며, 이노셈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신사업인 이녹스리튬의 첫 매출 반영이 예상된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705억 원으로 전망한다. 주지하다시피 2026년은 신사업으로 인해 매출 성장은 예상되나 신사업 초기 국면인 만큼 수익성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성장통이 불가피한 시기이다. 이녹스리튬의 2026년 연간 영업적자는 22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한다. 관련하여 전방 산업의 업황 회복 정도와 주요 고객사 영업 상황이 주요 변수일 것이다. 다만, 이녹스리튬 본격 사업화 및 2027년부터 본격화될 열폭주방지 면압패드 등 신규 이차전지 소재 부문은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므로, 이로 인한 단기 진통은 감내할 수밖에 없으며, 동사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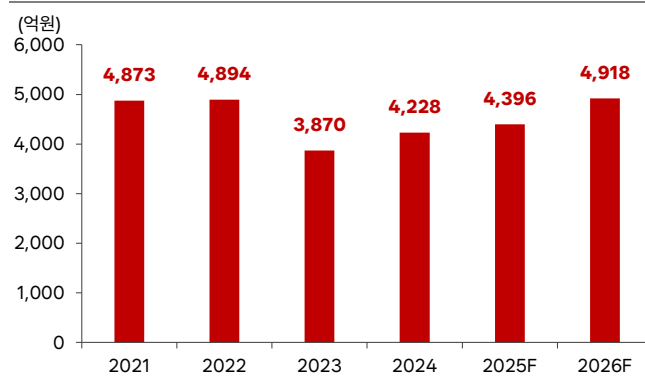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894	3,870	4,228	4,396	4,918
① INNOSEM	380	369	369	366	410
② INNOLED	2,877	2,045	2,427	2,915	2,710
③ SMARTFLEX	1,636	1,456	1,432	1,116	1,108
④ 이차전지 소재	-	-	-	-	690
영업이익	971	422	868	819	705
지배주주순이익	854	328	707	580	473
YoY 증감률					
매출액	0.4	-20.9	9.3	4.0	11.9
영업이익	0.4	-56.6	105.9	-5.6	-13.9
지배주주순이익	6.5	-61.6	115.8	-17.9	-18.5
영업이익률	19.8	10.9	20.5	18.6	14.3
지배주주순이익률	17.4	8.5	16.7	13.2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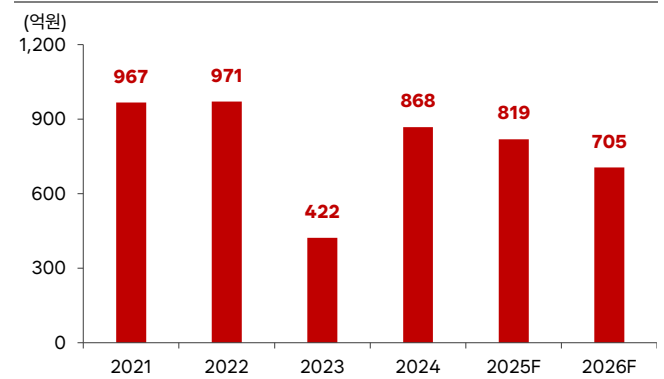
자료: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매출액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2026F PER 13.5배로 거래 중

동사 PE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시장 대비 할인되어 거래

2026년 4월 14일 기준 이녹스첨단소재 시가총액은 6,390억 원 수준이다. 2026년 이녹스첨단소재 예상 PER은 13.5배 정도로, 코스닥 시장(31.2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

Peer로 세경하이테크,
PI첨단소재를 선정

이녹스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이차전지 등 고부가 IT소재 전문기업이다. 동사와 유사한 기업에는 세경하이테크, PI첨단소재, 미래나노텍 등이 있다. Peer로 세경하이테크, PI첨단소재 2개사를 선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동사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보았다(미래나노텍은 컨센서스가 부재하여 제외). 기업간 비교는 2026F PER 측면에서 진행했다.

2026년 비교 3개사의 PER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다(동사 PER 13.5배 VS 세경하이테크 PER 9.3배 VS PI첨단소재 PER 17.1배). 동사는 PI첨단소재 대비 멀티플 할인을, 세경하이테크 대비 멀티플 할증을 받고 있다.

세경하이테크는 스마트폰 특수필름 제조기업으로 2025년 매출액 2,779억 원(-13.2% YoY), 영업이익 18억 원(-94.4% YoY)를 기록했다. 세경하이테크는 주요 고객사의 보수적인 폴더블 신모델 출하 전략과 고정비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녹스첨단소재는 고분자 합성/배합기술을 기반으로 FPCB/OLED/반도체 PKG 소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전방 산업이 다변화되어 있는 반면, 세경하이테크는 폴더블 보호필름/데코필름 등 주요 고객사의 폴더블폰 출하 전략과 실적이 연동되는 점이 주요 할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PI첨단소재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폴리이미드(PI) 필름 제조 기업으로, 2025년 기준 매출액 2,634억 원(+4.8% YoY), 영업이익 430억 원(+27.2% YoY)을 기록하며 수익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PI첨단소재는 PI 필름을 기반으로 전기차, ESS, 반도체 등으로 적용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초극박 필름 양산 기술을 기반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확보하고 있다. PI첨단소재와 이녹스첨단소재 모두 스마트폰 플래그십 수요가 주된 전방 산업이나, 이녹스첨단소재는 2026년 수산화리튬 신사업 본격화에 따른 초기 비용 증가로 단기적 이익 감소 요인이 존재해 상대적으로 할인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 (십억원)	매출액(십억원)			PER(배)			PBR(배)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2024	2025	2026F
코스피	5,968	4,747,572	3,680,461	3,893,843	3,657,767	11.3	15.4	7.8	0.8	1.3	1.6
코스닥	1,122	621,365	332,661	360,639	117,828	211.2	112.6	31.2	1.5	2.1	3.3
이녹스첨단소재	32,050	639	423	440	492	5.7	7.9	13.5	0.9	1.2	1.5
세경하이테크	4,765	169	320	278	307	19.9	5.3	9.3	2.0	1.0	0.8
PI첨단소재	24,050	706	251	263	287	22.3	15.1	17.1	1.5	1.3	1.8
동종업종 평균						21.1	10.2	13.2	1.7	1.2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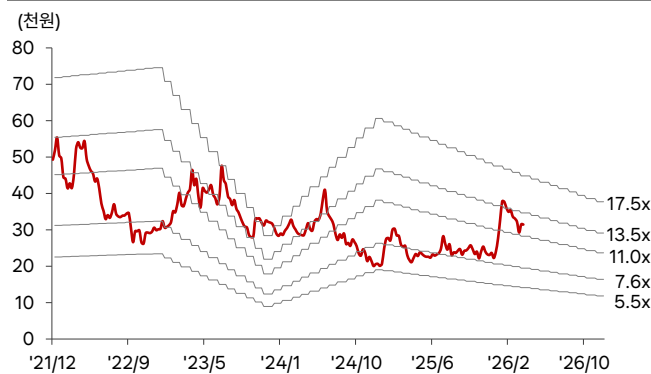
주: 2026년 4월 14일 종가 기준, 동종기업 26F는 시장컨센서스 사용,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6년 들어 동사 주가 흐름은 코스닥 시장 대비 양호

2025년 이녹스첨단소재 주가는 연간 약 13.2% 상승했다. 2025년 코스닥 시장의 연간 상승률이 36.5%였던 점을 고려할 때에 동사 주가 상승은 시장 대비 아쉬웠다. 이는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익된 점(2024년 868억 원 → 2025년 819억 원)과 전기차 산업 캐즘 및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약세/점유율 하락, 리튬 가격 우려 등이 연중 부각되며,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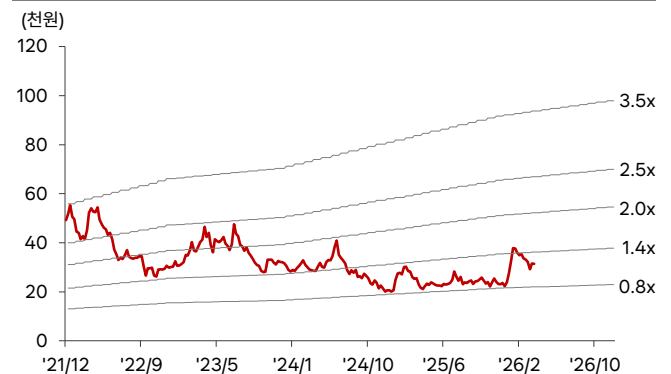
다행히도 2026년 들어 동사 주가는 연초 이후 현재까지 약 37.3% 상승하여 코스닥 시장 상승률(+17.7%)을 아웃퍼폼하고 있다. 향후 폴더블폰 등 고부가 세트 수요 호조와 이차전지 업황 기대감이 상승한다면 이녹스첨단소재 기업가치는 추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PER, PBR 밴드 상으로 現 주가는 밴드 중하단부에 위치하여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존재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PER Band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FnGuide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전기차 산업의 수요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

전기차 캐즘 장기화에 따른
이차전지 소재 업황 불확실성
지속, ESS 로봇 배터리 수요
성장의 중장기적 상쇄 가능성 주목

2022년 하반기 이후 전기차 산업에 전반적인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되고 있다. 스마트카 진화 속도와 자율주행 기술 발전, 이차전지 업황도 시장의 기대보다는 느려지고 약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러 완성차 기업들은 순수 전기차 제품 라인업 확대를 일부 자제하고, 하이브리드카 라인업을 늘리며 친환경차 확대 기조는 유지하나 그 약영향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전기차 산업 캐즘이 예상 외로 지속된다면, 연결 종속회사 이녹스리튬과 같은 이차전지 소재업체들의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차전지 산업 내 긍정적 요소들도 조금씩 발현되고는 있다. ESS 수요 증가와 이차전지 관련 광물가격 상승, 선진국의 중국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견제 강화, 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이차전지 수요 기대 확산 등이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ESS, 로봇(휴머노이드 등) 배터리 수요 성장은 기대된다. ESS, 로봇 배터리 수요가 아직 전기차 배터리 수요 감소를 의미있게 상쇄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판도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이러한 변화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4,894	3,870	4,228	4,396	4,918
증가율(%)	0.4	-20.9	9.3	4.0	11.9
매출원가	3,366	2,836	2,774	2,871	3,482
매출원가율(%)	68.8	73.3	65.6	65.3	70.8
매출총이익	1,528	1,034	1,455	1,525	1,436
매출이익률(%)	31.2	26.7	34.4	34.7	29.2
판매관리비	557	613	586	706	731
판매비율(%)	11.4	15.8	13.9	16.1	14.9
EBITDA	1,179	636	1,072	1,026	1,137
EBITDA 이익률(%)	24.1	16.4	25.4	23.3	23.1
증가율(%)	2.9	-46.1	68.7	-4.3	10.8
영업이익	971	422	868	819	705
영업이익률(%)	19.8	10.9	20.5	18.6	14.3
증가율(%)	0.4	-56.6	105.9	-5.6	-13.9
영업외손익	48	20	55	-62	-85
금융수익	37	77	114	94	90
금융비용	40	30	126	129	130
기타영업외손익	50	-27	67	-27	-45
총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1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1,019	441	922	757	620
증가율(%)	1.7	-56.7	109.0	-17.9	-18.1
법인세비용	165	114	222	197	190
계속사업이익	854	328	701	559	43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854	328	701	559	430
당기순이익률(%)	17.4	8.5	16.6	12.7	8.7
증가율(%)	6.5	-61.6	113.8	-20.1	-23.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854	328	707	580	473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925	882	1,067	683	781
당기순이익	854	328	701	559	430
유형자산 상각비	194	197	186	198	418
무형자산 상각비	14	17	18	9	14
외환손익	52	24	55	1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98	322	60	-19	-89
기타	-91	-6	47	-74	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28	-1,456	-1,988	-2,366	-60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0	-35	33	-17	-1
유형자산의 감소	1	3	2	3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05	-1,408	-2,012	-2,348	-600
기타	-14	-16	-11	-4	-8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35	782	1,440	1,904	34
차입금의 증가(감소)	-252	841	1,576	-12	102
사채의증가(감소)	0	0	0	179	0
자본의 증가	0	0	150	1,818	0
배당금	-69	-88	-49	-66	-67
기타	-114	29	-237	-15	-1
기타현금흐름	-11	-4	13	-1	0
현금의증가(감소)	51	204	532	220	206
기초현금	1,086	1,136	1,340	1,873	2,092
기말현금	1,136	1,340	1,873	2,092	2,29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730	2,634	3,181	3,608	3,993
현금성자산	1,136	1,340	1,873	2,092	2,298
단기투자자산	50	52	1	1	1
매출채권	604	698	698	664	743
재고자산	812	452	406	747	836
기타유동자산	126	93	203	103	115
비유동자산	1,909	3,084	5,079	7,272	7,441
유형자산	1,628	2,790	4,753	6,945	7,127
무형자산	57	48	41	63	49
투자자산	78	130	156	164	165
기타비유동자산	146	116	129	100	100
자산총계	4,639	5,718	8,260	10,880	11,434
유동부채	787	1,092	1,622	1,598	1,693
단기차입금	192	689	802	790	790
매입채무	68	108	161	177	198
기타유동부채	527	295	659	631	705
비유동부채	49	566	1,953	4,059	4,163
사채	0	0	0	158	158
장기차입금	0	500	1,906	1,989	2,089
기타비유동부채	49	66	47	1,912	1,916
부채총계	836	1,658	3,574	5,656	5,856
자배주주지분	3,803	4,060	4,630	3,933	4,330
자본금	101	101	101	101	101
자본잉여금	1,193	1,218	1,314	102	102
자본조정 등	-180	-173	-368	-279	-27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4	11	23	24	24
이익잉여금	2,675	2,903	3,560	3,985	4,382
자본총계	3,803	4,060	4,685	5,223	5,578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7.1	19.7	5.7	7.9	13.5
P/B(배)	1.6	1.6	0.9	1.2	1.5
P/S(배)	1.2	1.7	1.0	1.0	1.3
EV/EBITDA(배)	4.5	9.9	4.7	8.3	9.0
배당수익률(%)	1.5	0.8	1.7	1.5	1.2
EPS(원)	4,263	1,624	3,498	2,871	2,371
BPS(원)	18,895	20,098	22,890	19,735	21,719
SPS(원)	24,440	19,181	20,916	21,752	24,669
DPS(원)	450	250	350	350	400
수익성(%)					
ROE	24.8	8.3	16.3	13.6	11.4
ROA	18.7	6.3	10.0	5.8	3.9
ROIC	30.9	9.8	14.3	9.4	6.2
안정성(%)					
유동비율	346.7	241.2	196.2	225.8	235.8
부채비율	22.0	40.8	76.3	108.3	105.0
순차입금비율	-21.0	-4.2	20.8	52.3	47.1
이자보상배율	76.3	35.2	14.5	8.8	6.0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0.7	0.6	0.5	0.4
매출채권회전율	6.0	5.9	6.1	6.5	7.0
재고자산회전율	7.1	6.1	9.9	7.6	6.2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녹스첨단소재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04.16	이녹스첨단소재-사업 다각화라는 성장 스토리를 이어간다
2025.02.12	이녹스첨단소재-신사업을 준비하는 똑똑한 IT소재 전문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